

국제 ODA 동향

(2007. 4)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ODA 토포픽

[Page]

- [2006년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분석](#) [2]
 - ◆ OECD에 통보된 2006년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실적을 살펴봄으로써 무역관련 원조에 관한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제시
- [ADB 대몽골 중기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6]
 - ◆ ADB의 대몽골 중기지원 계획 업데이트 내용을 통해 몽골의 정치·사회상황을 알아보고, 향후 대몽골 EDCF 지원을 위한 교훈 및 시사점을 도출

ODA 단신

- [OECD, 개발 글로벌 포럼에서 개발금융의 복잡성 지적](#) [25]
 - ◆ 2007년 4월 개최된 OECD 개발 글로벌 포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ADB와 독일정부, 아시아지역 도시개발을 위한 다자협의체 포럼 개최](#) [28]
 - ◆ 아시아지역의 도시화 문제해결을 위해 2007년 2월 개최된 다자협의체 포럼 주요 논의 내용
- [다자간 원조기구들의 '제3차 성과회의'의 주요내용](#) [32]
 - ◆ 2007년 2월 개최된 다자간 원조기구들의 '제3차 성과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

ODA 자료

- [2006년 ODA통계\(잠정치\)의 주요내용](#) [35]
 - ◆ 2007년 4월 DAC가 발표한 2006년도 ODA통계(우리나라 포함)

EDCF 소식

- [2007년 1/4분기 EDCF 소식](#) [40]
 - ◆ 2007년 1/4분기 EDCF 주요 사업개요 및 EDCF 업무통계

ODA 토포 1

2006년도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분석

【요약】

-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참가국의 2006년도 원조사업 통보 결과를 보면,
 - 타이드 원조 통보금액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38억 SDR을 기록(이 중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30억 SDR을 차지)
 -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은 54억 SDR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 의해 사전통보된 2006년도 언타이드 원조 신용은 총 88건, 38억 SDR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

I.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통보(consensus notification)

1. 수출신용협약의 개요

□ 수출신용협약의 의의

- '수출신용협약(Agre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은 공적수출신용 및 무역관련 원조가 초래하는 무역질서 왜곡을 방지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1978년 4월 참가국 합의하에 제정되었음
 - 동 협약은 수출신용의 금융조건, 타이드 원조에 관한 규정, 통보 및 협의 절차, 부문별 양해¹⁾ 등으로 구성

□ 통보 대상

- 수출신용협약의 통보 대상이 되는 원조는 무역과 관련된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trade-related tied or untied aid)임
 - 타이드 원조는 지원금액 및 양허성 수준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통보 대상이 되며, 언타이드 원조는 사전통보 대상에만 해당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1) 선박·핵발전소·민간항공기·재생가능에너지 및 수자원프로젝트 등 특정부문에 대한 양해(sector understanding)로서 수출신용협약의 첨부자료를 구성

2. 통보 내용

가. 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 2006년에 통보된 타이드 원조는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4년 수준에 머무름
 - 통보금액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38억 SDR, 통보건수는 25% 감소한 223건을 기록
 - 양허성 수준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의 감소분(9억 SDR)이 전체 타이드 원조 감소분(15억 SDR)의 63%를 차지
 - 타이드 원조의 통보금액 추이 : 24억 SDR(2003년) → 36억 SDR(2004년) → 52억 SDR(2005년) → 38억 SDR(2006년)
- 통보된 타이드 원조 중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²⁾는 전년대비 19% 감소한 30억 SDR을 차지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의 통보건수는 140건으로 전년대비 14% 감소

타이드 원조 통보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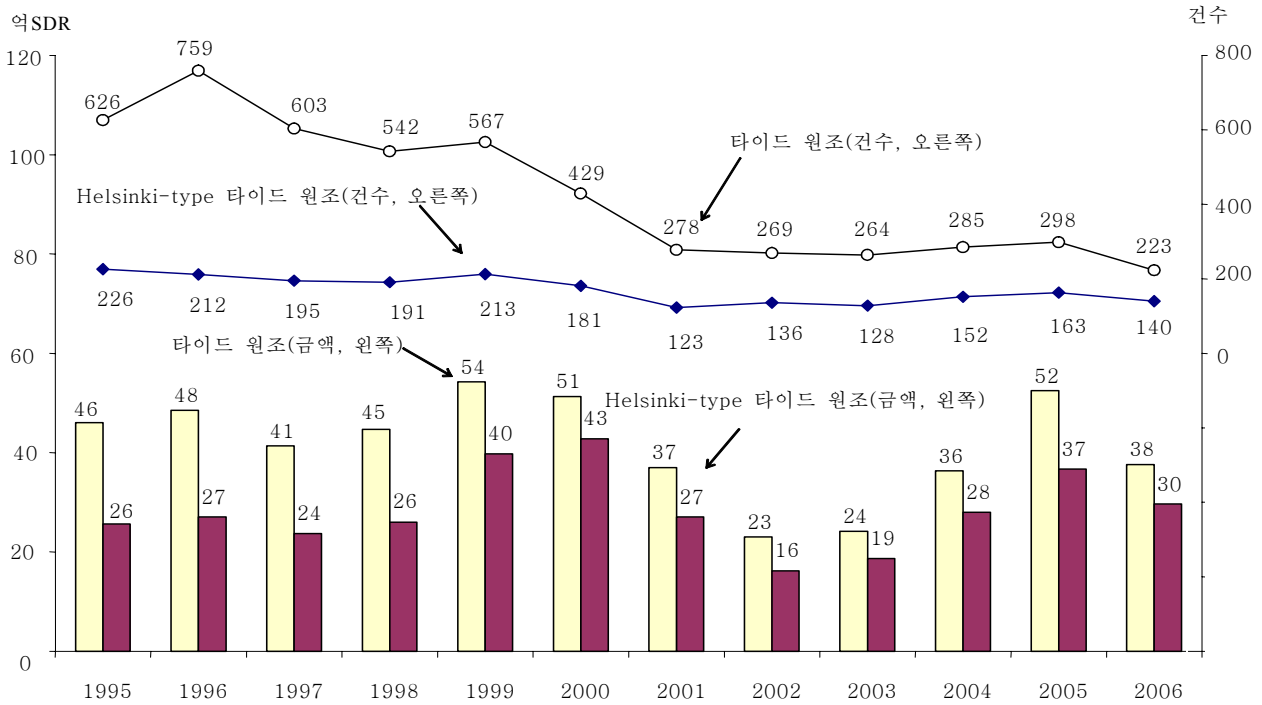
(단위 : 백만 SDR)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누 계*
통보대상 원조(all aid)	6,780	10,747	9,185	n.a.
- 언타이드 원조	3,144	5,502	5,426	n.a.
= 타이드 원조(tied aid)	3,636	5,246	3,760	61,343
- 소액 타이드 원조(2백만 SDR 미만)	114	78	50	2,764
- 최빈국에 대한 타이드 원조	417	115	292	5,001
- 양허성수준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	305	1,386	452	11,657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	2,801	3,667	2,967	41,922

* 1992. 3. ~ 2006. 12.

2) 상업성이 있는 사업과 고소득국가에 대한 타이드 원조 공여를 규제하기 위해 '92년에 도입된 Helsinki package의 규제대상이 되는 2백만 SDR 이상, 양허성 수준 35~80%의 타이드 원조를 말함

타이드 원조 통보 추이(1995~2006)



□ 2006년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의 주요 공여국은 일본과 스페인으로 전체의 45% 정도를 제공

○ 주요 공여국은 일본(27.3%), 스페인(17.2%), 네덜란드(9.6%), 프랑스(8.6%), 한국(7.5%), 덴마크(7.1%) 순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었고, 개별국가로는 베트남에 가장 많이 지원

○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집중(50.6%)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 수원국은 베트남(36.3%), 이집트(13.0%), 인도네시아(7.8%), 모로코(7.5%), 스리랑카(5.0%), 가나(3.6%), 중국(3.4%) 순

□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는 교통 부문과 교육·보건·수자원 및 위생 등 일반적으로 재무적 사업성이 없다고 간주되는 분야에 집중

○ 교통 부문(철도, 도로, 해상운송, 항공 등)은 전체 실적의 59.3%, 교육·보건·수자원 및 위생 등은 30.2%를 차지

- 일반적으로 재무적 사업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통신, 에너지, 산업 부문에는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가 거의 지원되지 않음
- **소액차관(de minimis)³⁾**은 통보 건수 및 금액에서 모두 감소 추세
 - 소액차관 통보 추이 : 105백만 SDR(90건, 2003년) → 89.5백만 SDR(75건, 2004년) → 57백만 SDR(48건, 2005년) → 44.5백만 SDR(37건, 2006년)
 - 1995년 이후 2006년까지 스페인(20.8%)이 가장 많은 소액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오스트리아(14.9%), 프랑스(12.9%), 네덜란드(10.6%) 등이 뒤를 이음
- **CL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는 약 4.6억 SDR(30건)로 전체 타이드 원조의 **12%**를 차지
 - CL 80% 이상인 타이드 원조의 공여국은 미국(84.5%), 스페인(9.2%), 이탈리아(6.3%) 등 3개국이며 주요 지원분야는 교통(26.4%), 정부 및 시민사회(24.7%) 등
- **매칭(matching)** 통보 건수는 199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 3년 동안은 연간 3~5건에 불과
 - 1992년 Helsinki 원칙이 도입되어 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매칭 건수는 1993년부터 점진적인 감소세가 시작됨
 - 1995년 항공운송 부문에서의 미국에 의한 다수의 매칭통보(35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제외
 - 2006년 매칭 통보 건수는 5건으로 프랑스(3), 일본(2) 등이 통보
- **대면협의(consultation)**를 받은 사업 건수도 1996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06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음
 - 1996년에 프로젝트의 상업성 판정기준을 제시한 '타이드 원조 사전지침'(Ex Ante Guidance for Tied Aid)이 마련되면서 대면협의 사례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대면협의 자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음

3) Helsinki-type 타이드 원조에 포함되지 않는 2백만 SDR 미만의 소액 원조

- 2006년말 현재 상업성 문제로 계류 중인 사업은 일본의 대 필리핀 항만확장 프로젝트와 포르투갈의 대 모로코 철도사업 등 2건에 불과
 - 두 사업은 각각 2003년과 2005년 미국에 의해 상업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아직 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음

나. 언타이드 원조 통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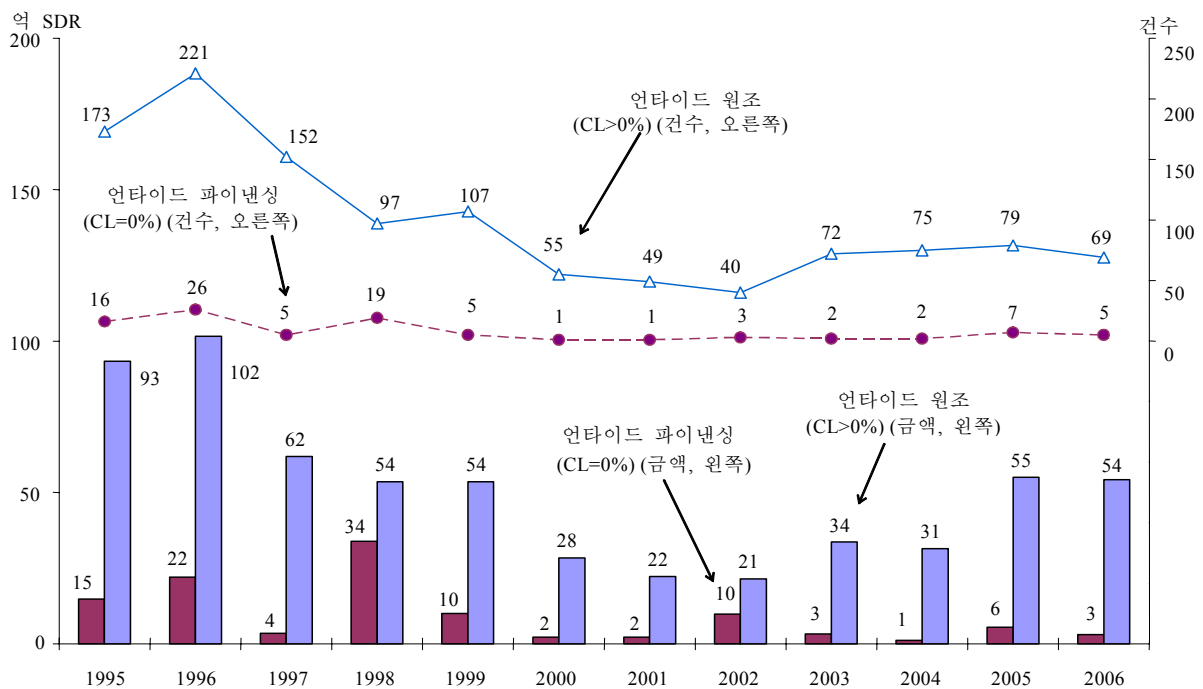
□ 2006년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타이드 원조 통보금액(38억 달러)을 큰 폭으로 상회

- 언타이드 원조의 통보건수는 69건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통보 금액은 전년에 비해 조금 줄어든 54억 SDR을 기록

※ 언타이드 파이낸싱⁴⁾은 총 5건, 3억 SDR을 기록

- 언타이드 원조의 통보금액 추이 : 34억 SDR(2003년) → 31억 SDR(2004년) → 55억 SDR(2005년) → 54억 SDR(2006년)

언타이드 원조 통보 추이(1995~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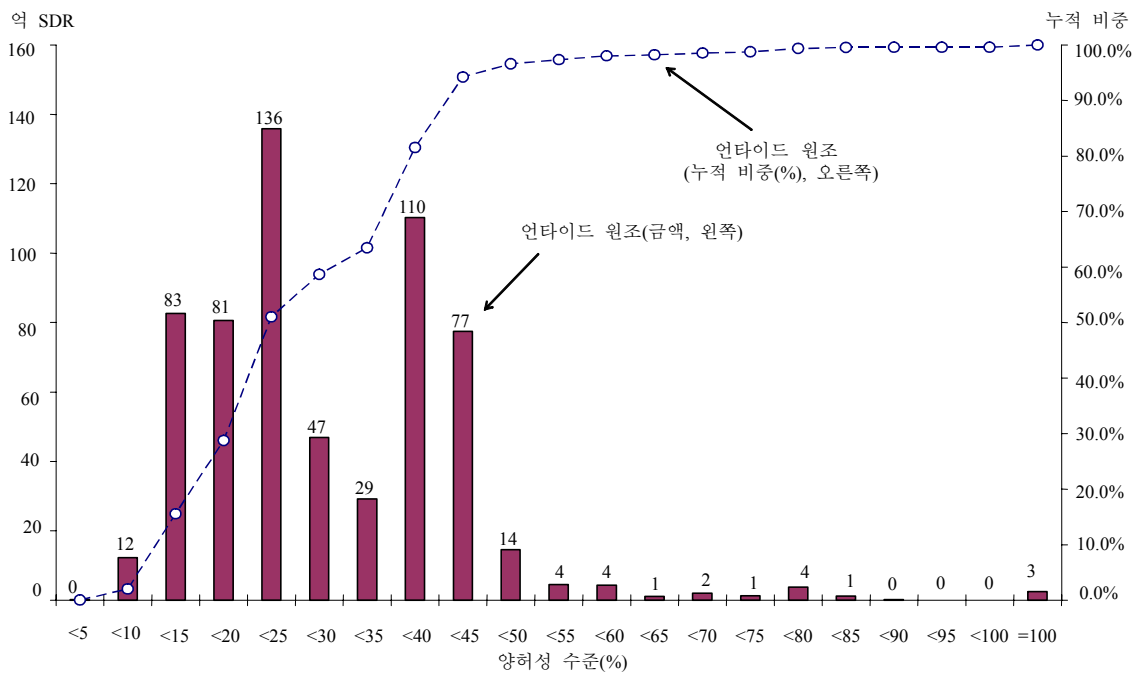


4) 언타이드 파이낸싱은 양허성 수준이 0%인 언타이드 자금지원(원조가 아님)으로 협약의 통보대상은 아니나 원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주로 일본이 인도, 중국, 태국 등을 대상으로 언타이드 파이낸싱을 제공

□ 언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수준은 대체로 낮은 편

- 2006년 언타이드 원조의 43%가 양허성 수준(concessional level) 35% 미만으로 지원되었으며 특히, 양허성 수준 20~25% 사이에 집중됨
 - CL 35~40%로 지원된 언타이드 원조는 전체 언타이드 원조의 54%를 차지
- 언타이드 원조의 과거 12년간(1995~2006) 평균 양허성 수준은 28.3%
 - 동 기간 각국의 평균 양허성 수준은 영국(100%), 네덜란드(81%), 이태리(50.55%), 스페인(45.55%), 노르웨이(43.24%), 독일(41.29%), 덴마크(32.18%), 스웨덴(27.88%), 프랑스(27.62%), 일본(26.96%) 순

언타이드 원조의 양허성 수준 구성



* 과거 12년간(1995~2006) 통보된 언타이드 원조의 합계금액(611억 SDR)을 대상으로 작성

□ 언타이드 원조의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전체 통보금액의 약 90%를 차지

- 2006년 주요 공여국은 일본(90.2%), 프랑스(5.2%), 독일(2.5%) 순이며 특히, 일본의 통보 금액은 전년대비 2.7% 증가
- 일본은 과거 12년간(1995~2006) 언타이드 원조의 89.9%를 제공

- 언타이드 원조의 주요 수원국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었으나 2006년에는 이라크가 최대 수원국으로 부상
 - 2006년 주요 수원국은 이라크(35.6%), 인도(23.2%), 중국(10.5%), 이집트(4.6%) 순
 - 과거 12년간(1995~2006) 주요 수원국은 중국(16.5%), 인도네시아(11.3%), 인도(10.2%), 베트남(7.9%), 태국(7.2%), 필리핀(6.7%) 순
 - 이들 국가에 대한 양허성 수준은 중국 27.52%, 인도네시아 26.14%, 인도 24.63%, 베트남 30.27%, 태국 22.0%, 필리핀 28.99%
- 언타이드 원조는 교통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주로 지원
 - 2006년 주요 지원부문은 교통(28.8%), 에너지(17.4%), 생산부문(13%) 순
 - 과거 12년간 언타이드 원조는 절반 이상이 교통 부문(30.1%)과 에너지 부문(23.1%)에 집중

【참고】 언타이드 원조에 ‘헬싱키 타이드 원칙’ 을 적용⁵⁾한 모의실험⁶⁾ 결과

- OECD는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언타이드 원조에 ‘헬싱키 타이드 원칙’을 가상으로 적용해 보고 있음
 - 언타이드 원조가 실질적으로는 타이드化되어 무역질서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언타이드 원조도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참가국의 주장에 따름
- 언타이드 원조에 대해 ‘헬싱키 타이드 원칙’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 주로 언타이드 원조의 낮은 양허성 수준으로 인해 과거 언타이드 원조실적의 약 69%가 헬싱키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 12년간의 언타이드 원조 통보금액(611억 SDR) 중 424억 SDR⁷⁾이 헬싱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과거의 언타이드 원조를 모두 헬싱키 타이드 원칙에 맞게 지원하려고 했다면 참가국들은 언타이드 원조예산을 47% 늘렸어야 했다는 결과가 나옴
 - 과거 12년간의 언타이드 원조금액(611억 SDR)과 언타이드 원조의 평균 CL(28.3%)을 감안할 때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grant)은 173억 SDR⁸⁾에 달함
 - 이를 언타이드 원조예산으로 볼 때, 헬싱키 원칙의 CE기준과 CL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조예산의 약 47%, 즉 81억 SDR⁹⁾의 추가 예산이 필요

II.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 따른 통보

1. 투명성 합의의 개요

□ 투명성 합의의 의미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Agre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는 언타이드 원조의 실질적 타이드化를 막고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1월 제93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로서 2년간(2005.1~2006.12)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동 합의는 언타이드 원조신용(기술협력 포함)에 대한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강화, 국제경쟁입찰 방식 사용 등을 골자로 함
 - 한편, 동 합의는 지난 2006년 11월 제98차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회의에서 그 유효기간이 2008년말까지 연장됨

□ 통보 대상

- 투명성 합의의 통보 대상은 언타이드 원조신용(Untied ODA Credits)으로 이는 주로 언타이드 차관을 말함
 - 사전 및 사후 통보대상은 5백만 SDR 이상의 언타이드 원조차관과 13만 SDR 이상의 기술 협력(FEED, A&E, PRTA 등)임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2. 통보 내용

가. 사전통보(ex ante notification)

- 2006년에 사전통보된 언타이드 원조신용은 총 88건, 38억 SDR을 기록

5)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헬싱키 타이드 원칙'은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성 기준(commercial viability)은 배제하고 적격국가 기준(country eligibility)과 최저 양허성 수준 기준(minimum concessionality level)만을 적용
6) 과거 12년간(1995~2006)의 언타이드 원조 통보실적(1,189건, 611억 SDR)을 대상으로 분석
7) 적격국가 기준(CE기준)에 맞지 않은 언타이드 원조(56억 SDR)와 최저 양허성 수준 기준(CL기준)에 맞지 않은 언타이드 원조(368억 SDR)가 이에 해당
8) 즉, 원조예산 = 611억 SDR × 28.3% = 173억 SDR
9) CE기준에 따라 비적격국에 대해서는 CL 80% 이상을 맞춰야 하므로 27억 SDR이 추가로 소요되고, CL기준에 따라 최저 CL(35%)을 맞춰야 하므로 54억 SDR이 추가로 소요되어 총 81억 SDR의 추가 예산이 필요

- 투명성 합의가 2005년부터 시행되면서 사전통보된 것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총 7개 공여국이 참가
 - 2006년 중 언타이드 원조신용을 통보한 나라는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5개국
-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최대 공여국은 일본(27억 SDR)이고 최대 수원국은 인도(6억 SDR)
 - 주요 공여국은 일본(71.2%), 네덜란드(11.5%), 프랑스(9.3%), 독일(6.6%), 스페인(1.4%) 순이고, 주요 수원국은 인도(16.8%), 중국(15.7%), 베트남(15.4%), 이집트(6.3%) 순
- 언타이드 원조신용은 전년에는 에너지 부문에 주로 집중되었으나 2006년에는 주로 수자원 및 위생, 교통 부문에 지원됨
 - 주요 지원부문은 수자원 및 위생(26.7%), 교통(19.1%), 에너지(14.7%) 순
-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절반 이상이 기술협력을 본 사업의 핵심부분으로 포함
 - 전체 사전통보 건(88건) 중 36건(22억 SDR)이 기술협력을 본 사업의 핵심부분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28건), 독일(4건), 프랑스(4건)가 이를 지원
-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대부분이 국제경쟁입찰(ICB)을 적용
 - 투명성 합의는 구매계약시 가능한 한 국제경쟁입찰(ICB) 적용을 권고함에 따라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약 88%는 ICB를 적용한 반면, ICB 적용이 어려운 8.8%는 현지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1.4%는 수의계약을 적용함

나. 사후통보(ex post notification)

- 2006년 8월에 취합된 2005년 사후통보 실적은 너무 미미하여 동 투명성 합의를 2년 더 연장하게 만든 계기가 됨
 - 2005년 사후통보 실적은 전년도에 사전통보된 언타이드 차관사업에 대해

각 공여국의 수주실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큰 관심을 모았으나 아직 입찰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업이 많아 통보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음

- 예컨대, 일본은 2005년 중 사전통보한 언타이드 차관이 약 30억 SDR에 달했으나 수주한 실적은 2.5백만 SDR에 불과하였다고 사후통보함

- OECD 사무국은 사후통보 실적이 미미하여 현시점에서는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우므로 2006년 11월 제98차 정기 수출 신용협약 참가국 회의에서 2006년말에 끝나는 투명성 합의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가국들은 이에 동의하였음

- 이에 따라 동 투명성 합의는 2008년말까지 2년 더 연장됨

□ 2006년 언타이드 원조신용에 대한 사후통보는 올해 8월말까지 완료 예정

- 사후통보는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내용, 수주기업, 수주국가 등 사업 수주 결과를 모두 포함하며 연 1회 집계표 형식으로 일괄 제출됨
- 올해 사후통보 내용에는 2005년 및 2006년에 사전통보된 사업의 입찰결과를 모두 포함할 것으로 예상

I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는 2006년 전체 ODA 감소와 함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원조 규모 확대와 함께 차츰 늘어날 전망

- 협약의 통보대상 원조는 전체 ODA의 10%에도 못 미치지만 ODA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따라간다면 2008년부터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

- OECD는 DAC회원국의 2006년 ODA 규모(잠정치)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1,068억 달러 → 1,039억 달러)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2005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는 지나치게 늘어난 2005년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이드 원조는 Helsinki 원칙을 잘 따르고 있으며, 언타이드 차관은 최근 도입된 투명성 합의에 따라 통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됨
 - 타이드 원조는 대면협의 건수와 매칭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1992년 도입된 Helsinki 원칙과 1996년 마련된 타이드 원조 사전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됨
 - 대면협의를 2005년에는 2건, 2006년에는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매칭은 1995년에는 43건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3~5건으로 줄어들었음
 - 2005년부터 시행된 언타이드 원조신용에 대한 투명성 합의에 따라 원조공여국은 사전·사후 통보를 잘 이행하고 있음
 - 동 투명성 합의에 따라 언타이드 차관을 통보한 국가는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5개국(2006년 기준)에 불과하나 이들 국가는 지금까지 동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상존하나 언타이드 차관의 수주 결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 규제방안 도입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 따라 언타이드 차관에 대한 사후통보가 2006년 8월말까지 완료되었으나 2005년 승인건의 입찰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수주결과가 보고된 건은 극소수에 불과
 - 따라서 언타이드 차관의 실질적 타이드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언타이드 차관의 제재방안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기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

자 료 : 1. Tied Aid: 2006 Full-Year Review of Experience with the "Helsinki" Tied Aid Disciplines of the Arrangement, 2007.4.
2. Untied Aid: 2006 "Shadow" Helsinki Review of Untied Notifications, 2007.4.
3. 2006 Full-Year Review: Arrang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 2007.3.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목차보기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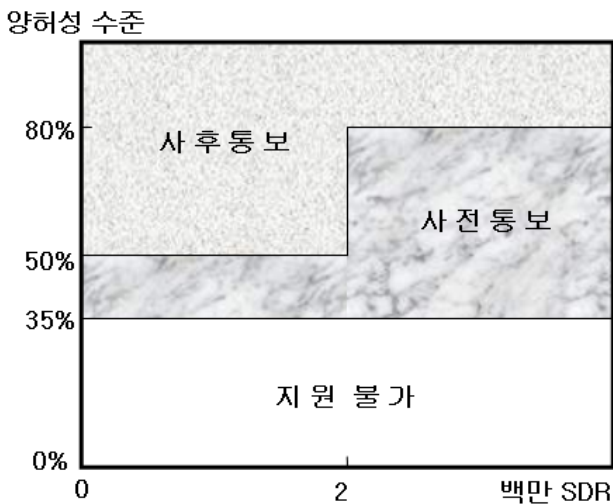
원조사업의 OECD에 대한 통보의 종류

1.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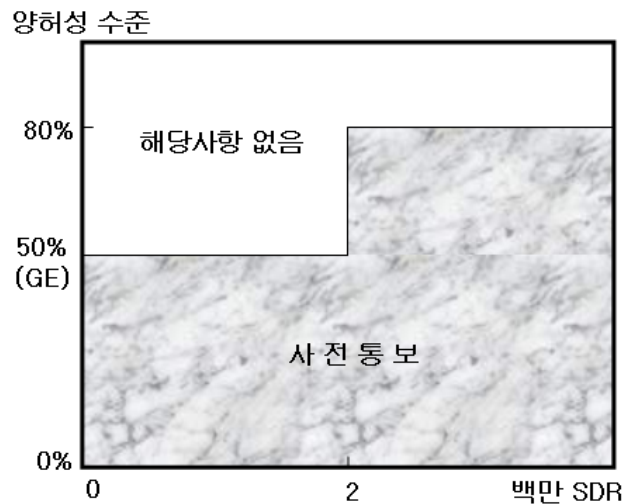
통보 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무역관련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trade-related tied or untied aid)

구 분	원조형태	통 보 대 상
사전통보	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양허성수준이 50% 미만
	언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증여율이 50% 미만
사후통보	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이상 - 지원금액이 2백만 SDR 미만이며 양허성수준이 50% 이상
	언타이드 원조	해당사항 없음

〈 타이드 원조 〉



〈 언타이드 원조 〉



통보 방법

- 사전통보 : 입찰마감일 또는 원조약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30영업일 이전에 통보
- 사후통보 : 약정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보

□ **통보 내용**

-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모두 동일한 통보양식을 사용하여 건별로 통보
 - 기본정보, 수입자/차주/보증인 정보, 수출되는 재화용역 및 프로젝트관련 정보, 금융조건, 원조형태, 양허성 수준, 차등할인율(DDR)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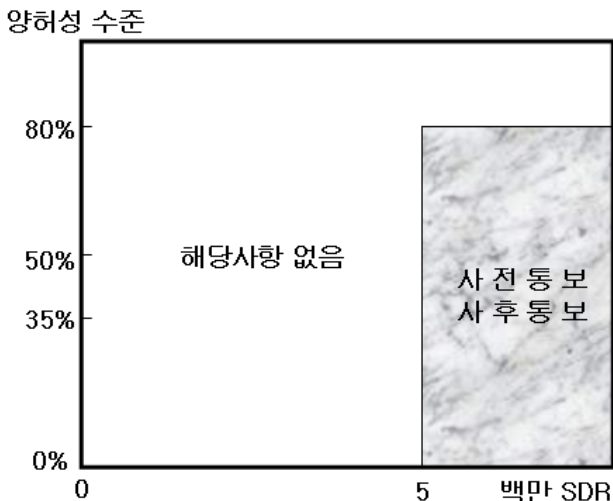
2.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에 따른 통보

- 통보 대상 : 5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 수준이 80% 미만인 언타이드 차관 (13만 SDR 이상의 기술협력 포함)

구 분	원조형태	통 보 대 상
사전통보 및 사후통보	언타이드 차관	지원금액이 5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기술협력	13만 SDR 이상의 투자연계기술협력(IRTC)*

* 투자연계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지원을 위한 기술협력으로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및 설계지원(FEED), 건축엔지니어링지원(A&E), 구매관련기술지원(PRTA) 등을 말하며 특정 프로젝트의 준비 또는 수행과는 무관한 독립기술협력(Free 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과는 구분됨

〈 언타이드 차관 〉



〈 기술협력(IRTC) 〉



□ **통보 방법**

- 사전통보 : 건별로 입찰개시일 **30일전까지** 통보
- 사후통보 : 직전년도 사전통보 건의 **입찰결과**를 집계하여 차년도에 일괄 통보(연 1회)

통보 내용

- 사전통보 : 프로젝트 금액, 공여국, 수원국, 프로젝트 개요, 입찰정보, 구매 주관기관, 기술협력, 차관금액 및 지원조건 등
- 사후통보 : 사전통보번호, 공여국, 수원국, 계약금액, 수주기업 등 원조사업의 수주결과

ODA 토픽 2

ADB 대몽골 중기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요약】

- ADB의 대몽골 중기 (2007-2009년) 지원 계획 업데이트 (Country Strategy Program Update) 내용을 통해 최근 몽골의 정치 사회상황을 알아보고, 과거 중기지원 계획의 실시 결과, ADB의 몽골지원 방식 및 지원 규모 등을 검토하여 향후 대몽골 EDCF 지원을 위한 교훈 및 시사점을 찾고자 함

I. ADB의 대몽골 중기지원계획 개요

- ADB는 각 지원대상국의 개발금융 수요 및 개발필요 분야에 대한 조사를 거쳐 3년 단위의 중기 계획(Country Strategy Program)을 작성하고 있음
- ADB의 대몽골 중기지원 계획은 몽골의 최근 개발관련 추세 및 주요 현안, 몽골의 경제 구조·현황 및 전망, 국별프로그램의 중점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정치) 몽골은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청산의 난제에 봉착해 있으며,
 - (정국) 구리광산개발권 문제로 울란바토르 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있음
 - (경제)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조세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국별프로그램 내용) 정례기술회의 참석,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 실시, 공공관리 및 투명성 제고,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추진 중임
- 상기 내용들의 고찰을 통해 EDCF의 대몽골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함

II. 대몽골 중기 지원계획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

1. 몽골의 최근 정치 사회 상황, 개발관련 추세 및 주요 현안

- 몽골은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미완료 등에 따라 정치적으로 혼란하며, 사회적으로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광산 및 시장경제 이익의 불공정 분배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정치적으로 여전히 부정부패 청산의 난제에 봉착
 - 2006년 1월, 인민혁명당과 민주당의 연합 붕괴 후, 인민혁명당과 군소 정당으로 구성된 새로운 내각이 결성되었으나, 신정부는 여전히 기존 정부의 부정부패 청산이란 고질적인 난제에 봉착
 - 정국의 불안
 - 2006년 4월 캐나다 Ivanhoe사와의 구리광산개발권 협약 문제로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국이 불안
 - 협약 문제 관련 협상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것에 시민단체와 정부간 합의로 시위대는 해산
 - 광산 및 시장경제 이익의 불공정 분배에 대한 반대여론 확산
 - 국제공산품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몽골이 국제시장에서 광업 분야에서 도출되는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고,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에 따른 이익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
 - 원조자금 이외의 여타 자금원 모색 요구 대두
 - 지난 15년 이상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주도해 왔던 원조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있으며, 일부 정부관료들은 인프라 및 광업 분야 개발을 위해 원조자금 이외의 비양허적 재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인프라 부족 등에 따라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근 조세개편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원조 이외의 자금조달원 다양화 노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높은 무역의존도 및 교통·인프라의 미비로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님
 - 중국과 러시아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지니고 있고, 교통·인프라 구축 미비로 물류·유통산업이 취약하며, 소수의 공산품 가격 및 기후 변화에 따라 타격받기 쉬운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님
- 경제성장은 2004년 정점을 지나 2005년 이후 서서히 둔화 추세를 보임
 - 광산분야 호조에 따라 2004년 10%를 상회하던 GDP 성장률의 경우 소폭 하락될 전망 (2005년 : 6.2%, 2006년(e) : 6.0%, 2007년(e) : 5.0%)
- 조세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2007년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세개편(소득세 정액세율<10%> 적용, 법인세 이중과세제도<10% 및 25%> 도입, 부가가치세 인하<15%→10%>)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광산(구리, 금)에 대한 초과이윤세를 통해 조세개편에 따른 재정부족을 충당하려는 계획이었으나, 2007년 들어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에 따른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난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원조자금 이외에 민간 수출금융 및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원 다양화 노력
 - 중국으로부터 3억 달러의 자금 조달(정부 부분보증, 민간 수출금융) 모색중, 인프라 및 제조업 부문 지원을 위해 채권 발행 추진중
- **국별전략 프로그램의 중점추진 과제**는 정례회의를 통한 수원국 자금 수요 파악, 개발결과에 근거한 수원국 역량 집중 및 원조효과성 제고,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원의 다양화 등임
 - 수원국 정부 주재 정례기술회의 참석을 통해 수원국의 자금 수요 파악
 - 외부 원조공여기관들과의 정례(연 2회) 기술회의 참석을 통해 재원조달 수요 및 투자공급원 매치 노력
 -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를 통하여 개발결과에 근거한 수원국 역량 집중 및 원조효과성 제고에 노력

- 사업수행과정 파악을 위한 중간사업평가단 파견을 통해 기 지원된 개발원조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파악된 개발결과에 적합하도록 수원국 역량 집중을 지원하여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부처간 모니터링 및 의사소통체계 확립

○ **공공관리(Governance) 및 투명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

- 몽골 시민단체들은 개발원조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수행 과정에 시민 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관리(Governance) 강화 및 투명성(반부패)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공공관리 및 투명성 강화의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 및 사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호책임의식을 고취

○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추진**

- 관민협력방식(Public Private Partnership : PPP)의 채택 모색중, 민간부분 자금조달과의 연계 추진중이며, 무상원조자금의 활용을 통해 외국 원조기관과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할 것을 수원국 앞 권고

2. 국가전략프로그램 이행 상황

빈곤감축 관련 UN의 MDG에 맞추어 **ADB 및 몽골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중임**

- 빈곤감축과 관련 몽골은 UN이 제창한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이하 'MDG')에 기초한 국가 개발 전략 및 부문 전략 수립에 공조하고 있으며, MDG 이행을 위한 1차 회의를 완료한 바 있음

국별전략 프로그램은 분야(재정, 도로, 교육 등)별로 진전을 보임

- ADB 재정 지원을 위하여 재정규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독일과 공동 자금지원 방안 모색

- 재정 지원 프로그램 관련 재정규제위원회 (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설립하여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 관련, ADB와 독일기술협력공사 (Gesellschaft Fur Technische Zusammenarbeit : GTZ)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
 - 도로부문 관련, 중국-몽골-러시아를 잇는 도로가 2009년말까지 완공되면, 지역 협력 및 통합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당행은 본건 사업에 EDCF 자금 23.9백만 달러를 승인(2004.7.)하고, 차관공여계약을 체결(2005.3.)한 바 있으며, 최근 실시기관인 도로관광교통부와 시공사간 구매계약 체결을 완료(2007.4.)하였음
 - 상기 사업 이외에도 ADB는 서부지역 도로개발 프로젝트 대출방식 지원을 검토중임¹⁰⁾
 - 몽골 정부는 교육부분의 Master Plan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동 Master Plan은 ADB가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 TA)로 지원할 예정
- 대출 및 기술원조 모두를 활용하여 민간부문 사업발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재정 규제 및 공공관리 개선 사업(Financial Regulation and Governance Loan, 2005년 승인)은 비은행기관(non-bank institutions)의 참여를 지원하며, 상업은행들의 공공관리(governance) 제고 및 몽골 자본시장 개발에 기여
 - 관세 현대화 사업¹¹⁾은 무역 촉진, 부패 절감,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
 - 농촌 및 농업개발 사업은 민간부문의 수출시장 개척을 촉진하며, 민간부문 지원을 위한 신규 금융상품 개발 유도할 것으로 기대

10) 러시아 남서시베리아(Novosibirsk)~서몽골~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준비 기술원조(Project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 PPTA)는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뤄질 전망 : 1 단계는 프로젝트 경제적 타당성 평가, 효익 배분 분석, ADB Financing 기준과의 적합성 검토, 협조용자 가능성 논의, 2단계는 프로젝트 예비 설계(Preliminary Design) 등임

11) 2006년에 계획된 프로젝트로서 관세관련 데이터 자동화, 관세청 인프라 개선, 관련부처 역량 강화 등을 사업내용으로 함. 총사업비용 6.8백만 달러 중 ADB Loan (Special Fund) 5백만 달러, E-Asia and Knowledge Partnership Fund(Grant) 0.5백만 달러, 몽골 정부예산 1.3백만 달러로 각각 조달 예정

- 중소기업 지원 및 전력 수출을 위한 발전프로젝트 또한 현재 중점지원 분야이며, ADB의 최초 민간부문 지원 건인 대 무역 개발은행 투자를 비롯, 재정 및 인프라 부문민간 투자를 통한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
- 협조용자와 관련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였고, 교육분야에 대해 독일 기술협력공사와 협조용자 실시 예정이며, 에너지 등 수출지원 효과가 큰 분야와 관련 타 금융기관과의 협조용자 등 자금조달 방안 모색중
 - 협조용자 중점지원 분야 및 지원 전략
 - 중점지원 분야는 교육, 농업, 교통분야이며, 무상기금 활용을 최대화하되, 국제 원조기관들의 금융참여 촉진을 통한 인프라 지원에 대한 정부이해 제고
 - ADB가 도시개발 및 교육분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무상원조 및 민간금융의 신규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ADB의 자금조달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함
 - 교육분야 관련 일본 정부와 ADB의 협조용자 방식에 따른 지원 사례
 - 일본 정부 및 ADB는 교육지원 관련 몽골의 제안서를 World Bank의 'Education for All Fast Track Initiative¹²⁾'앞 공동 제출하였으며, ADB, 교육 분야 관련 독일의 개발원조기관인 독일기술협력공사와 협조용자키로 합의
 - 인프라 관련 외국 금융기관과의 협조용자 방안 활용 및 국채 발행을 통한 수원국의 차입비용 절감방안 모색
 - 에너지 분야 등 수출지원 효과가 큰 부문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ADB 보증부 국채발행을 통하여 수원국의 차입비용절감 방안을 모색중임

3. 프로젝트 사후관리 관련 사안

12) **Education for All(EFA)**은 1990년 태국에서 "모든 사회의 모든 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자" 라는 내용으로 처음 시작된 국제적인 공약(commitment)임. **Education for all - Fast Track Initiative**는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중 교육관련 사항인 초등교육 의무화 달성(2015년까지 전세계 모든 소년·소녀들이 초등교육 과정 이수)을 촉진하기 위해 World Bank가 선진 원조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중임을 나타냄. 교육관련 World Bank의 대출규모는 7.3억 달러(2000년)에서 2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원조사업 진전도 조사 결과, 개발 효과에는 대체로 만족할만하였으나, 몽골의 차관도입관련 복잡한 의사결정과정, 잦은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공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몽골 거주 중간사업평가단(Resident Mission)의 진전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at risk)' 및 '문제 있음(problem)'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없었으며, 개발목표 달성에 있어서 '만족할만함(satisfactory)' 및 '매우 만족 할만함(highly satisfactory)'의 등급을 받은 바 있음
 - 원조사업은 사업수행 일정과 국회승인 시점의 불일치,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공백 발생 등에 따라 지연됨
 - 사업 수행 일정과 국회 승인 일정의 불일치에 따라 사업승인부터 차관계약체결 시까지 소요시간 증가
 -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기능 일시중단에 따라 차관계약 체결부터 발효까지 시간 지연 발생, 집행률 감소, 시공사 선정률 악화
-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 도시개발 및 주택 사업 사례를 분석 하였으며, 사업수행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는 결론임
 - 기술원조를 통해 개발 결과 관리(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 MfDR)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동 사례를 분석 하였는 바, 사업효과 평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더 많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일부 수정
 - 사업수행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하였는 바, 기초 데이터 및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indicators), 물리적 투입 등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결과 도출
 - 2006년 4월, 몽골 거주 중간사업평가단(Resident Mission) 파견을 통하여 사업평가 과정에 몽골 시민사회 참가를 독려하고, 사업수행 결과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기초데이터, 효과모니터링을 위한 적정한 지표(indicators) 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결과 도출

- 국별 중간사업평가단(Country Portfolio Review Mission)의 사업실행계획(Action Plan)에는 평가지표개선, 개발결과 평가자 교육, 부문 평가 지표간 조화(to harmonize sector indicators), 부문 평가지표와 평가시스템간 상관관계 분석, 수집된 데이터 정리 등이 단계별로 포함됨

4. 원조지원방식

□ 대출 프로그램

- 국가별 대출재원 할당은 국별수행평가 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ADB의 대몽골 지원한도는 2년간 48.3백만 달러 수준이고, 특정사업 지원한도는 총사업비용의 80% 수준임.
- 대출 재원의 국별 할당은 국별수행평가(Country Performance Assessment : CPA) 결과에 기초하고 있는 바, ADF(Asia Development Fund)의 2년(2007~2008)간 대몽골 지원할당 규모는 48.3백만 달러 수준이며, 2009년은 미정임 (2007년 국별수행평가 결과 및 ADF 보충 관련 토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
- 지원한도는 특정사업 총사업비용의 80% 수준임

□ 대출 이외의 프로그램

- 기술원조에는 사업준비 기술원조(Project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PPTA) 및 자문운영 기술원조(Advisory Operational Technical Assistance : AOTA) 등이 있음
- PPTA는 기관 조직 수립 지원(Project Implementation Unit 구성 등), 공공 서비스 효율성 제고(관세현대화 사업 등), 조정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기여
- AOTA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에 해당

Ⅲ. ADB의 대몽골 중기지원계획이 주는 시사점

□ 수원국 특수사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 경주 필요

- 원조사업 지연사유가 사업 수행 일정과 국회 승인 일정의 불일치 및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기능 일시중단임을 감안, 정권교체 및 국회회기 등을 감안하여 프로젝트 진행 및 완공을 세부적으로 염두에 두고 심사
-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공기문제로 많은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는 대부분 흑한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기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까닭인 바, 프로젝트 심사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들 필요

□ 심사 뿐만 아니라 구매절차 촉진을 위한 체계적 노력 필요

-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차주인 재무부, 실시기관 및 사업실시 주체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및 정기적 유선 및 이메일 접촉을 통해,
- 몽골국 특유의 거친 협상 방식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 및 철저한 통제가 필요
- 심사출장 뿐만 아니라, 구매촉진을 위한 현지출장 및 출장시 'Rolling Plan' 체계화 필요
-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 및 사후관리 효율성을 제고, 공공관리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원조 공여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표준화(특히, 구매절차의 표준화 작업) 등이 선행 필요

- 자 료 : 1. ADB, Mongolia : Country Strategy and Program Update(2007-2009) (Sec M78-06, August 14, 2006)
2. 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 몽골 국별 리포트(2007. 1.)
3. ADB,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President to the Board of Directors, Proposed Loan and Grant Administration, Mongolia : Customs Modernization Project (Project number 35376, November 2006)
4.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TOPICS/EXTEDUCATION/0,,menuPK:282391~pagePK:149018~piPK:149093~theSitePK:282386,00.html>
5. ADB, Mongolia Technical Assistance Report, Mongolia : Preparing the Western Regional Road Development Project(Project Number 39265, May 2006)

작 성 : 김 성 욱, swkim@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단신 1

OECD, 개발 글로벌 포럼에서 개발금융의 복잡성 지적

- OECD는 OECD와 OECD 비가입국 정부 및 민간부문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올해 4월 개발 글로벌 포럼(OECD Global Forum on Development) 개최
 - 2006~2009년간 논의할 포럼의 주제는 ‘효율적 개발금융 지원’ (Financing Development Effectively)으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포럼¹³⁾을 통해 개발 금융의 현황을 조사
 - 올해 4월 3일 파리에서 개최된 개발 글로벌 포럼에서는 그간의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포럼의 방향에 대해 토의
- 개발 글로벌 포럼에서 제시된 개발금융의 현주소 및 문제점
 - 개발금융의 범위는 양자간 원조를 담당하는 공여국,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원조기관, NGO, 비영리성 원조단체에서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여주체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
 - MDG 달성 각종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UN 산하기관만 해도 45곳이 넘으며, 1985~1994년 동안 300여 곳에 불과하던 개발금융 공여기관(원조단체 포함)은 1995~2004년 동안 1,000여 곳으로 폭증
 - 2000년 이후 각종 민간 지원단체 신설이 폭증세
 - 특히, 수원국 1국 당 원조공여기관 수는 평균 23.4곳이며, 원조지원액 순위로 상위 5개 공여기관이 원조액 합계의 평균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원조기관은 소규모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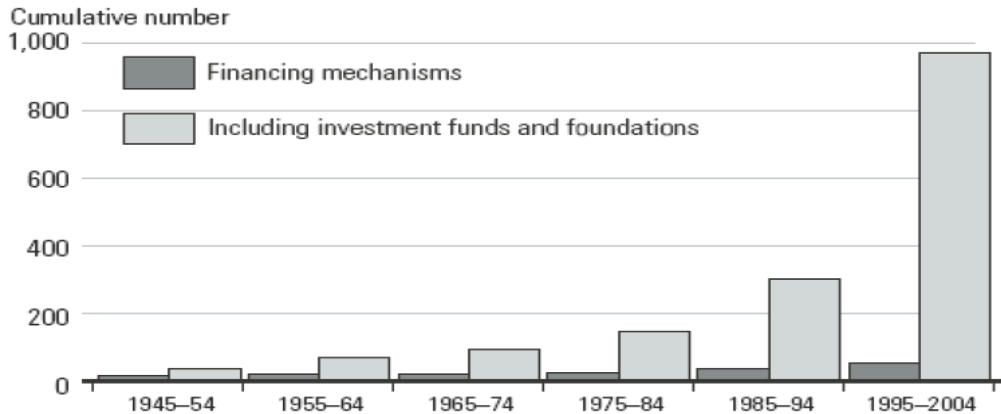
13) 1차 포럼 : ‘Global Forum Launch’, 프랑스 파리, 2006. 7. 3.~7. 4.

2차 포럼 : ‘Global Programmes’, 프랑스 파리, 2006. 12. 4.~12. 5.

3차 포럼 : ‘Multilaterals’, 독일 베를린, 2007. 1. 29.~1. 30.

4차 포럼 : ‘Foundations’, 포르투갈 리스본, 2007. 3. 22.~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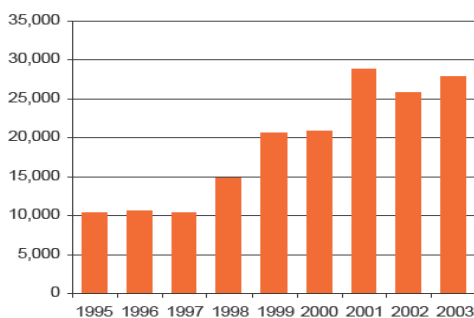
원조지원기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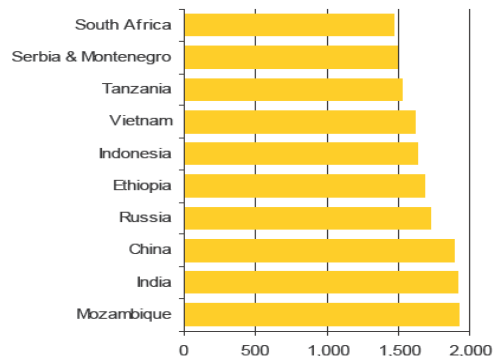
- 이러한 개발금융 공여주체의 증가는 원조금액의 양적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수원국이 수많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원조의 효과가 감소되는 문제가 있음
- 2001~2003년간 상위 10위의 수원국에 대한 프로젝트 승인건수를 비교해 보면 최소 1,500건(남아공)에서 최대 2,000여건(모잠비크)에 이르는 등 수원국의 고도의 사업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 원조사업 건수 및 상위 10대 수원국 앞 사업승인 건수

Number of reported project commitments all donors (1995-2003)



Number of reported project commitments top ten recipients (2001-03)



- 수원국의 개발 최우선 과제 등과 상관없이, 또는 특별한 연관성 없이 개별 지원 되는 금융은 수원국 정부의 개발정책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체계적인 원조 공여의 부재는 '원조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세계은행이나 IMF 등 다자간 개발금융기구의 지원이 전문화된 분야 없이 일반적인 ODA 지원 부문과 거의 중복되고 있어, 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함¹⁴⁾

□ 시사점

- 산발적인 무상지원 원조단체 및 민간기업의 원조활동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기존 개발지원 시스템 하에 편입시켜 '원조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파리선언에서 제기된 원조 공여기관 간 수원국 앞 원조정책 및 프로그램의 연계 또는 조화(Donor Harmonization)의 중요성이 재확인됨
- 원조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 개발금융기구의 조정자 역할 수행 필요

자 료 : http://www.oecd.org/site/0,2865,en_21571361_37824719_1_1_1_1_1,00.html

작 성 : 이 진 의, jylee@koreaexim.go.kr

목차보기

14) 올해 초 베를린에서 개최된 포럼 중 비공식 워크샵에서는 국제 금융개발기구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는 다자간 개발금융기구들의 Soul-searching(자아찾기)으로 명명됨.

ODA 단신 2

ADB와 독일정부, 아시아지역 도시개발을 위한 다자협약체 포럼 개최

1. 결성 배경

-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독일 정부(BMZ, 연방경제협력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개발이슈(도로, 교통, 주거, 위생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공동으로 관련 펀드를 조성키로 하고 이를 공식화하기 위하여 **CDIA(City Development Initiative for Asia) 포럼**을 개최
 - 공동펀드는 1단계로 약 50백만 달러를 조성키로 하고 이는 주로 아시아 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각 지방도시의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지원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
 - * 2015년까지 아시아지역 약 200만 명의 도시빈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을 목표로 지원활동 예정
 - CDIA를 통한 개발사업 진행시에는 2006년 9월 결성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다자협약체」 참여기관*들의 공동투자로 대부분의 소요자금을 조달할 계획
 - *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프랑스 대외원조청(AFD),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독일 부흥금융금고(KfW), 태국 대외원조국(NEDA), 한국 수출입은행(EDCF) 등이 참여

2. CDIA포럼 개요 및 주요 토론내용

가. 포럼 개요 및 주요 의제

- 이번 포럼은 10개 공여국, 9개 다자기구 및 14개 수원국 정부에서 참석하여 ADB 본부가 위치한 마닐라에서 2007. 2. 5~2. 6일까지 이틀간 개최

□ 주요 의제

- 최근 아시아지역에서의 도시화 추세 및 이에 따른 위기와 기회요인 발표
- CDIA의 필요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지역도시 관계자, 타 공여국 및 공여기관) 간 논의

나. 주요 토론내용

□ 효과적인 도시개발의 관리

- 인구 1천만 이상의 대도시화는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는 동시에 빈곤의 중심역할을 하는 바, 도시의 슬럼화를 피하기 위한 계획적인 개발이 절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등 고체폐기물 관리, 주거타운 개발, 슬럼화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며 이를 위해서 공여국 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서도 조세제도 및 행정능력 개발이 긴요
- UCLG* 결성배경 및 효과적인 도시개발의 관리와 관련되어 UCLG와 같은 도시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 200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된 비정부기구로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한 능력개발, 인프라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임(2006년 말 기준 회원국은 127개국)

□ 부문별 접근방식의 확대

- 최근 ADB 및 Cities Alliance(World Bank 산하조직) 지원으로 수행한 아시아 지역 약 12개 도시에 대한 좋은 사례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도시개발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프로젝트별 접근방식보다는 교통, 주거, 상하수도 등 부문별 또는 여러 부문을 묶은 종합적 개발방식이 유효함을 역설

- 최근 아시아지역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전체 도심주거지의 30~50%가 슬럼화되고 있고, 이는 불법점유로 이어져 전반적인 도시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방정부의 통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한편, 동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과 관련하여 막대한 소요자금 대비 관련 리스크가 커 정부부문 또는 민간부문 단독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관련 프로젝트에서 민관합동(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형태 또는 여러 공여국의 공동지원(Co-financing)의 형태로 지원되기를 희망

□ CDIA 결성 선언

- CDIA는 우선적으로 ADB와 독일정부에서 펀드를 조성(50백만 달러 규모) 하여 아시아지역 도시개발을 위한 기술협력(TA, Technical Assistance)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각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향후 프로젝트 수행시는 많은 공여국 또는 공여기관에서 CDIA에 공동투자 등의 참여를 당부

3. 시사점 및 의의

- 이번 CDIA는 국제 개발원조사회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이 지역 빈곤해결에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
- 이 문제 해결에는 공여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Governance 향상, 능력개발 및 세제개혁 등 복합적인 부문에서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음
- 공여기관들의 입장에서도 초기 기금조성(약 50백만 달러 규모)을 확정시킴으로서 CDIA의 실행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 EDCF는 2006년 9월 다자협약체 참여와 더불어 이번 CDIA포럼 참여를 통해 향후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하였고 국제 개발원조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 하였음
- 이를 통해 EDCF는 국내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수 개발원조 기관들과의 협조유자를 통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자 료 : <http://www.adb.org/Documents/Events/2007/asia-urban/program.asp>

작 성 : 엄 성 용, syum@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단신 3

다자간 원조기구들의 '제3차 성과회의'의 주요 내용

1. 회의 개요

- 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은 올해 2월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제3차 성과회의(the 3rd results roundtable)**를 개최하고 성과중심의 관리의 감시 및 평가, 예산 및 기획, 상호책임 및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리더십 함양, 통계정보 수집 등의 이슈들을 논의
- 일시 및 장소 : 2007. 2. 5~2. 8. (4일간), 베트남 하노이
- 참석자: World Bank, OECD DAC, UNDP, ADB, AfDB, IDB, IFAD, 원조 공여국, 개발도상국, 기타 원조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 400여명
- 회의 배경
 - 2002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OECD 등 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은 성과중심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 ⇒ **제1차 성과회의(the 1st results roundtable)**
 - 또한, 2004년 2월 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성과중심 관리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공동합의서(Marrakech Memorandum)**에 서명 ⇒ **제2차 성과회의(the 2nd results roundtable)**

2. 주요 논의 내용

-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감시 및 평가기법의 개발
 - 성과중심의 관리제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감시와 평가 방법의 개발이 절실하며, 특히 원조의 **영향평가기법(impact assessment tool)** 개발이 매우 중요

- 이 기법을 통해 원조의 영향을 받는 집단들의 특질을 명확히 평가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원조공여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
- 고도로 발달된 현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감시 및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원조효과의 제고 도모

□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예산 배분 방법에 대한 논의

- 과거 프로젝트에서 달성한 성과를 원조 자원 배분의 기준 중 하나로 인정하여 성과관리의 중요성 향상
- 차관지원 신청시 성과관리 및 원조지원 방법의 강화를 위한 프로포절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원조 효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원조 계획 수립을 도모하자는 제안이 논의된 바, 대부분 그 실효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
- 수원국들간 준비능력 격차로 인해 일부 국가들에 있어 원조의 문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유발될 가능성 존재

□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상호협조

- 파리선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원국뿐 아니라 공여국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파리선언의 이행노력을 감시하기 위해 자국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캄보디아와 모잠비크를 소개
- 정부체제는 다르지만 두 국가 모두 파리선언의 이행노력을 감시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원조공약을 지키지 않은 공여국에 약정사항의 이행을 유도하고, 파리선언 이행의 감시체제를 국내 시스템에 편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임
-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여국의 전담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변화를 도입하고, 수원국과 공여국간 상호책무를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 모두 동의

□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통계 수집

- 국가통계프로그램과 국가개발프로그램 사이에 완전한 연계 또는 조화(harmonization)가 필요하며, 통계능력의 개발은 국가개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적절한 통계자료가 관리 되지 않으면 잘못된 정책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로 인해 기대이하의 원조효과 성과가 나타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공감대 형성
 - 수원국의 자국 통계 프로그램 개발 강화 노력에 더불어 공여국의 원조 노력이 정책적인 조화를 이루면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주요 시사점

- 파리선언 이후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성과중심의 관리의 현실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진일보한 회의였음
 - 1, 2차 성과회의가 회의의 의의 및 목적을 정립했다면 이번 3차 성과회의는 관리 기법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평가
- 참가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각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통해 상호 이해 및 협력 고취
 - 회의 첫날 '성과 시장(Results Market)'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들이 자국의 성공적인 원조 성과들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소개하여 가장 훌륭한 작품을 시상
-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성과중심의 관리기법이 개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선진국의 사례를 천편일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인 환경에 맞는 평가의 필요성, 인센티브의 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주장되는바, 국가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실질적인 관리기법 개발에 긍정적인 전망 시사

자 료 : <http://www.mfdr.org/rt3/>

작 성 : 박 현 희, sarapark@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자료

2006년 ODA통계(잠정치)의 주요내용

1. DAC 회원국의 ODA 규모

- 2006년 DAC 회원국의 ODA 잠정치 규모(순지출기준)는 총 1,039억 달러로 전년(1,068억 달러)대비 5.1% 감소(실질가치 기준)
 - 이라크 및 나이지리아에 대한 부채탕감(Debt Relief) 감소가 규모 축소의 주요인(2005년 190억 달러 → 2006년 140억 달러)
 - 부채탕감 규모의 변화는 사전에 이미 예측된 결과로 부채탕감을 제외하면 실질가치 기준으로 전년대비 1.8% 감소
 - 2006년도에도 부채탕감은 DAC 회원국 전체 ODA의 18.4%를 차지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임
 - ODA/GNI 비율은 0.3%로 전년대비 0.03% 포인트 감소

주요 DAC 회원국의 ODA 규모

(단위: 억 달러, 순지출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잠정치)	
	ODA	ODA/GNI	ODA	ODA/GNI
미 국	276	0.22%	227	0.17%
일 본	131	0.28%	116	0.25%
E U (15개국)	557	0.44%	589	0.43%
영 국	108	0.47%	126	0.52%
프 랑 스	100	0.47%	104	0.47%
독 일	101	0.36%	104	0.36%
네 델 란 드	51	0.82%	55	0.81%
스 웨 덴	34	0.94%	40	1.03%
스 페 인	30	0.27%	38	0.32%
DAC 전체	1,068	0.33%	1,039	0.30%

- **2006년 최대 공여국(순지출기준)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순**이며, UN이 제시한 목표 ODA/GNI 비율(0.7%)을 달성한 공여국은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 총 5개국임
 - 미국의 2006년 ODA는 227억 달러로 전년대비 20% 감소(실질가치 기준), ODA/GNI 비율은 0.22%에서 0.17%로 감소
 - 이는 이라크에 대한 부채탕감액 감소에 기인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56억 달러) 및 최빈국(55억 달러)에 대한 지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 교육, AIDS 및 말라리아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라크(48억 달러) 및 아프가니스탄(16억 달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
 - 일본의 2006년 ODA는 116억 달러로 전년대비 9.6% 감소(실질가치 기준), ODA/GNI 비율은 0.28%에서 0.25%로 감소
 - 2005년 쓰나미 긴급지원 및 이라크 부채탕감에 따른 일시적 증가세 해소가 ODA 감소의 주 요인
 - 일본의 ODA(순지출 기준)는 2005년 일시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 EU DAC 회원국(15개국)의 2006년 ODA는 589억 달러로 전년대비 2.7% 증가(실질가치 기준), ODA/GNI 비율은 0.44%에서 0.43%로 감소
 - EU의 목표 ODA/GNI 비율(0.39%)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ODA 증가의 대부분은 부채탕감에 따른 증여(137억 달러)가 차지
 -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EU가 정한 국가별 최저 ODA/GNI 비율(0.33%)에 못 미쳐 이를 달성하기 위한 ODA 증대 노력이 필요
- **2007년도에도 DAC 회원국의 ODA는 나이지리아 및 이라크에 대한 부채탕감이 완료됨에 따라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주요 공여국들이 ODA 증액 공약을 실천하게 되어 부채탕감을 제외한 ODA는 증가할 전망**

2. 우리나라 ODA 지원실적

□ 2006년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순지출기준)는 총 446.67백만 달러로 전년(752.32백만 달러) 대비 40.6% 감소 (다만, 2004년 대비 5.5% 상승)

○ 다자간 원조의 대폭 축소(전년대비 71.9% 감소)가 실적감소의 주 요인

- 2005년 IDA 재원보충을 위한 출자금 급증(2004년 43.7백만 달러 → 2005년 119.7백만 달러), IDB 가입에 따른 출자금 납입(81.2백만 달러) 등 일시적 증가 요인이 소멸됨에 따라 감소
- IMF-PRGF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양허성 차관(잔액: 32.5백만 달러)의 조기 상환도 감소폭을 늘림

○ 양자간 원조의 감소(전년대비 21.1% 감소)도 실적감소의 원인

- 무상원조(전년대비 21.9% 감소) : 중동지역 전쟁과 남아시아 지역의 쓰나미 등 예외적인 사건발생으로 2005년도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이 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효과 감소
- 유상원조(전년대비 19.4% 감소) : 2006년 중 EDCF 경쟁입찰 강화에 따른 구매절차 지연 등으로 자금집행이 부진한 것에 기인하나, 2006년 약정(승인)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향후 실적이 차츰 증가할 것으로 기대

2006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지출기준)

구 성 항 목	2005년	2006년	증감률(%)	비중(%)
ODA (A+B)	752.32	446.67	-40.6	100.0
양자간 ODA (A)	463.30	365.61	-21.1	81.9
무상원조	318.00	248.50	-21.9	양자중 68.0
(그중: KOICA)	(201.86)	(193.25)	(-4.3)	(무상중 77.8)
유상원조(EDCF)	145.30	117.11	-19.4	양자중 32.0
다자간 ODA (B)	289.01	81.06	-71.9	18.1
(그중: 한국은행)	(239.90)	(23.04)	(-90.4)	(다자중 28.4)
ODA/GNI(%)	0.095%	0.050%	-	-

□ 양자간 원조의 지리적 배분

- 최빈개도국(LDCs)에 대한 원조는 전년대비 19.3% 감소한 92.74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양자간 원조의 25.4%를 차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전년대비 11.4% 증가한 37.2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양자간 원조의 10.2%를 차지
- 이라크에 대한 지원은 양자간 원조 중 15.5%를 차지

□ GNI 대비 ODA 지원규모

- **GNI 대비 ODA 지원규모**는 전년(0.095%)대비 0.045% 포인트 감소한 **0.05%**이고, 대북지원(335.92백만 달러)을 포함할 경우 0.09%
 - 대북지원은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하여 ODA 통계에서 제외되나 이를 포함 하더라도 DAC 22개 회원국 평균(0.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국민 1인당 ODA 부담은 9.2달러 수준

붙임 :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기준)

작 성 : 김 태 범, ktb@koreaexim.go.kr

목차보기

(붙임)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년		2006년(잠정치)	
	ODA	ODA/GNI	ODA	ODA/GNI
미 국	27,622	0.22	22,739	0.17
영 국	10,767	0.47	12,607	0.52
일 본	13,147	0.28	11,608	0.25
프 랑 스	10,026	0.47	10,448	0.47
독 일	10,082	0.36	10,351	0.36
네 덜 란 드	5,115	0.82	5,452	0.81
스 웨 덴	3,362	0.94	3,967	1.03
스 페 인	3,018	0.27	3,801	0.32
캐 나 다	3,756	0.34	3,713	0.30
이 탈 리 아	5,091	0.29	3,672	0.20
노 르 웨 이	2,786	0.94	2,946	0.89
덴 마 크	2,109	0.81	2,234	0.80
호 주	1,680	0.25	2,128	0.30
벨 기 에	1,963	0.53	1,968	0.50
스 위 스	1,767	0.44	1,647	0.39
오스트리아	1,573	0.52	1,513	0.48
아 일 랜 드	719	0.42	997	0.53
핀 란 드	902	0.46	826	0.39
포 르 투 갈	377	0.21	391	0.21
그 리 스	384	0.17	384	0.16
룩셈부르크	256	0.86	291	0.89
뉴 질 랜 드	274	0.27	257	0.27
합 계	106,777	0.33	103,940	0.30
우 리 나 라	752	0.10	447	0.05

EDCF 소식

2007년 1/4분기 EDCF 소식

1. 2007년 1/4분기 중 주요 사업 개요

□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정부 (베트남 도로공사)
- 총 사업비용 : 63.1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49.7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아시아개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GMS 남부해안 연결 도로 개보수 사업 중 일부 구간의 도로 및 교량 개보수
- 사업개요 :
 - 베트남 정부의 지원요청에 따라 **ADB와 협조융자 방식으로 지원**
 - 남부해안 연결도로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교통량 증가, 수송비용 감소 및 해당지역 경제성장 등 예상

□ 방글라데시 철도기관차 구매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방글라데시 정부 (방글라데시 철도청)
- 총 사업비용 : 39.7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8.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디젤전기기관차 10대 구매,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 사업개요 :
 - 과거 1, 2차 EDCF 지원을 통하여 기관차 구매사업을 수행했던 **방글라데시 정부가 한국산 기관차의 품질을 인정하고 추가로 사업 요청**
 - 방글라데시 철도기관차 중 42% 이상이 차령 30년 이상의 노후기관차로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본 EDCF 사업으로 철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파키스탄 지진피해복구 지원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파키스탄 정부 (파키스탄 지진피해복구청)
- 총 사업비용 : 25.5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0.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건설 중장비 구매·검수, 교육훈련 등
- 사업 개요 :
 - 2005년 10월 진도 7.6의 강진으로 파괴된 도로, 교량 등의 지진피해 복구 작업 가속화를 위한 건설 중장비 구매 등
 - 현재 지진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건설 중장비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피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본건 지원을 통하여 복구활동의 촉진, 복구비용의 대폭 절감 등이 예상됨

□ 중국 산둥성 곡부시 오수재생처리시설 설치사업 (차관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중국건설은행 (곡부시 오수처리공장)
- 총 사업비용 : 5.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7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곡부시 오수재생처리시설 증설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자재 및 장비의 구매
- 사업 개요 :
 - 기존 운영중인 오수처리시설을 1일 처리용량 4만톤 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4년 차관지원요청서 접수, 2005년 정부 지원방침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3월 차관계약(L/A) 체결
 - 중국 정부의 환경정책을 국제적 협력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업 실시 지역의 생활 환경개선, 경제·사회적 안정에 기여

□ 적도기니 바타시 상수도 공급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적도기니 정부 (적도기니 인프라도시계획부)
- 총 사업비용 : 215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취·정수장, 관로, 물탱크 등 현대적 상수도 시설 건설, 교육 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 개요 :
 - 바타시 상수도 공급은 적도기니 중기경제전략 상의 우선순위의 사업이며, 우리나라의 적도기니에 대한 최초의 지원사업으로, 2006년 차관계약, 2007년 2월 구매계약 체결
 - 적도기니 정부로서는 이례적인 대규모 유상원조 사업이자 최초의 대규모 상수도 사업으로,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통한 보건환경 제고 기대

2. EDCF 업무통계 요약 (2007. 3. 31. 현재)

□ 연도별 승인 및 집행 현황

- 최근 4년간 승인, 집행,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승인*	집행	기금조성(누계)
2004년	2,433	1,555	16,505
2005년	2,990	1,643	17,586
2006년	3,565	1,361	19,238
2007년(3월말)	928	88	19,433

* 2007. 3. 30.자 환율 (₩950.20/US\$) 적용

○ 승인 및 집행 누계

- 승인 : 40개국 155개 사업, 2조7,672억원 ('07년 : 3개국 3개 사업, 928억원)
- 집행 : 37개국 115개 사업, 1조6,267억원 ('07년 : 11개국 13개 사업, 88억원)

□ 지역별, 부문별 승인 및 집행누계 (1987~2007. 3.)

○ 지역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원)

지 역	승인		집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 시 아	18,628	67.3%	11,101	68.2%
유 럽	3,203	11.6%	2,309	14.2%
아프리카	2,622	9.5%	1,676	10.3%
중 남 미	2,121	7.7%	626	3.8%
중 동	947	3.4%	473	2.9%
대 양 주	151	0.5%	82	0.5%
합 계	27,672	100.0%	16,267	100.0%

○ 분야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원)

분 야	승인		집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 통	7,945	28.7%	4,312	26.5%
통 신	3,775	13.6%	3,162	19.4%
에 너 지	2,461	8.9%	2,127	13.1%
수자원, 위생	4,094	14.8%	1,747	10.7%
환 경 보 호	217	0.8%	148	0.9%
보 건	2,548	9.2%	1,710	10.5%
교 육	2,567	9.3%	1,246	7.7%
공 공 행 정	2,094	7.6%	609	3.7%
농 수 입	1,040	3.8%	523	3.2%
기 타	931	3.4%	683	4.2%
합 계	27,672	100%	16,267	100%

작 성 : 김 태 범, ktb@koreaexim.go.kr

목차보기